'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新 불교사자성어

③ 소욕지족(少欲知足)

'작은 것', '적은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少(적을 소)'는 '다(多, 많다)'의 상대어로 수량, 정도를 가리키는 한자이다. 그리고 글자 모양이 거의 비슷해서 때론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小(작을 소)'는 '대(大)'의 상대어로, 크지 않다는 뜻으로 부피를 가리키는 말이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은 '작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 즉 '넉넉하지 못함', '적음', '모자람', '부족함'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적은 재산, 적은 수입으로도 만족하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욕심이나 물욕이 많으면(多慾) 조금은 천박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물신주의의 천박한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소욕지족(少欲知足)은 〈불유교경(佛遺教經)〉에 있는 사자성어다. 부처님의 '유언' 또는 '유훈'이라는 경전인데, 내용이 좀 길지만 그 어떤 글보다 잠언이라서 읽어보았으면 한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뇌도 많다. 그러나 욕심이 적은 사람은 욕심이나 욕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少欲之人)은 남의 마음을 사려고 아첨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끌려 다니지 않는다. 욕심이 적은(少欲) 사람은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다. 하는 일마다 항상 마음이 평온하다. 욕심이 적은 사람, 그는 번뇌의 불을 꺼버린 니르바나(열반, 寂靜)의 경지에 이르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 '소욕(少欲, 소욕지족)'이라 한다.

만약 모든 고뇌(苦惱)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땅히 '소욕'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少欲知足). 만족할 줄 아는 것(知足之法), 그것이 곧 마음이 풍족한 안온(安穩)의 경지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있을 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한 사람이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행복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재산, 이성, 식탐, 명예욕, 장수 등 오욕(五欲)에 지배를 당한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知足之人)은 그런 사람을 가련하게 여긴다. 이것을 '지족(知足)'이라고 한다."

욕심, 욕망의 끝은 없다. 역사상 몰락한 군주나 정치인들 대부분은 지나친 욕심, 욕망 때문에 패망했다. 이성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개인은 물론 한 나라를 망친 경우는 너무나도 많다.

중국 문명사에서 황금시대를 열은 왕조는 당(唐, 618-907) 왕조이다. 그런 당 왕조가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은 6대 황제인 현종 때부터다. 현종은 처음엔 정치를 잘 했으나 양귀비를 만나 비극적인 사랑, 운명적인 애정 행각에 올인했다. 그 결과 '안사(安史)의 난'으로 머나먼 촉 땅까지 피난을 가야 하는 쓰라린 맛을 보았다. 뒤늦게 통한했지만 후회의 속성은 후행성, 엎어진 물그릇은 도저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 유명한 백거이의 장한가(長恨歌)는 현종과 양귀비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린 시가(詩歌)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한 순간에 몰락의 길을 걷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인 것인지, 끝이 없다. 돈, 출세, 미인 등 소유욕 앞에서는 이성(理性)이 정지되는 것 같다. 제동능력을 상실하고 종착역을 향하여 질주한다. 비극이 눈앞에 나타나야 멈춘다.

욕심이나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理性)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 너무 감성에 올인하면 그 결과는 대개 비극을 낳고, 너무 이성에 올인하면 때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낳는다. 이성과 감성의 조화, 그것이 곧 '소욕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음 또한 깨달음이 아니다"



격절록 강설

③ 덕산시중화 평창 1

지금부터 제 1칙 '덕산시중화'에 대한 원오 선사의 평창(評唱, 해설과 비평)을 살펴본다. 〈격절록〉 100칙 가운데 본칙이 가장 자세하고 내용이 길어서 4회에 걸쳐 소개한다.

[評唱 1]

師云. 古人擧一機一境 皆明此事. 且世尊未擧花已前 是箇什麼道理. 後來所以 買帽相頭 相席打令 如今只管記憶千端萬端 打葛藤 有什麼了期. 多知多解 轉生煩惱. 古人或拈古頌古一則因緣 須是出得他古人意 方可拈掇.

고인의 일기일경(一機一境)은 모두가 이 일(此事)을 밝힌 것이다. 자, 세존이 아직 꽃을 들기 이전, 이것은 무슨 도리인가? 뒤에 왔다는 이유로 그저 모자를 먼저 사놓고 머리를 재거나 규칙이나 정해놓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지금 단지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기억해서 말(葛藤)만 늘어놓는다면, 무슨 끝마칠 날이 있겠는가! 많이 알고 많이 이해할수록 번뇌만 더할 뿐이다. 고인이 혹시(그러할 리는 없지만 만일에) 일칙인연에 염고를 하고 송고를 한다면 모름지기 저 고인의 뜻에서 나와야 문제를 제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只如 德山本是西蜀 講金剛經座主. 聞南方禪宗大興 他云"南方魔子如此盛 遂罷講散徒 擎將疏鈔 欲破禪宗"及至龍潭 言下大悟. 後住德山 三日一回搜堂 凡見文字 即時燒却 十二時中 打風打雨. 後來出巖頭雪峰 如龍似虎相似. 到他 打葛藤時 自有奇特處.

그건 그렇고, 덕산은 본래 서촉(西蜀) 사람으로 〈금강경〉을 강의하던 좌주(座主)였다. 남방에 선종이 크게 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말하기를 "남방에 마구니들이 이와 같이 성행한다니 곧장 강의를 그만 두고, 학인들을 해산하고 소초(疏鈔)를 들고 나아가서 선종을 부숴버리고 말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용담(龍潭, 용담숭신)에 이르러서는 말 한마디에 크게 깨닫게 되었다. 그 뒤에 덕산에 머물렀는데, 3일에 한 번씩 승당을 뒤지면서 문자(경전이나 어록)를 보기만 하면 바로 태워버렸고, 하루 종일 (방망이로) 바람을 치고 비를 치듯 했다. 뒷날 암두(巖頭, 암두전활)와 설봉(雪峰, 설봉의존)이 여기서 나왔는데, 마치 용과 같고 호랑이와 같았다. 덕산에 이르러 말을 할 때는 기이하고 특이한 곳(奇特處)이 있었다.

一日示衆道"汝但無事於心 無心於事 則虛而靈 寂而妙"又道"捉空追響 勞汝心神. 夢覺覺非 覺亦非覺"

하루는 (덕산이) 대중에게 법문을 했다.

"그대들이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일에 마음이 없으면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면서도 오묘하게 된다."

또 말했다.

"허공을 잡고 메아리를 좇으니, 그대들의 심신만 수고롭게 하는구나. 꿈에서 깨어나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음 또한 깨달음이 아니다."

※일기일경(一機一境)은 선사들이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을 깜빡거리거나, "할!"을 하는 등의 미묘한 언동을 뜻한다.

※拈掇(염철): 원래는 어떤 물건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주무르는 것을 의미. 선어록에서는 문제로 제기하여 이야기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상석타령(相席打令)은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용담숭신(龍潭崇信, 782~865)은 천황도오(天皇道悟)의 법을 이었고, 덕산선감의 스승이다.

※암두전활과 설봉의존, 그리고 흠산문수 3인은 선가에 도반으로 유명하다. 앞의 2인은 덕산의 법을, 흠산은 동산양개의 법을 이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③ 믿음(信) 편 3

종교를 믿는 이유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구하는 존재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다. 이런 개인적 욕구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형성된 욕구도 있다.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설날이 되면 떡국이 먹고 싶고 추석이 다가오면 송편이, 동짓날엔 팥죽이 먹고 싶다. 서구인들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칠면조 요리가 먹고 싶을 것이다. 사회문화적 욕구가 발동하는 것이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욕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배가 고픈데도 먹지 않으면 굶어죽고 설날인데도 떡국을 먹지 않으면 마음에 뭔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온다.

세속적인(俗) 삶에서 벗어나 거룩한(聖) 삶을 추구하는 종교적 욕구도 마찬가지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주말이면 교회와 성당, 사찰 등에 간다. 종교적 욕구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종교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종교적 욕구 또한 개인적, 사회문화적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적 욕구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면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유한한 실존 앞에 무력감을 느끼지만,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여러 종교에서 영원한 삶, 즉 영생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종교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종교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유형을 건강형(Healthy minded)과 병적인 형(Sicked minded)으로 구분하였다. 건강형이란 친구나 부모를 따라 교회나 성당에 가는 것처럼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교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에 속한다. 반면 병적인 형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유한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는 유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사의 문제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차지한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종교가들은 대개 병적인 형에 속한다. 석가모니 붓다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왕자로 태어나 화려한 삶을 살다가 성문 밖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사람과 마주한다.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실존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는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하고 6년간의 처절한 고행을 한다. 마침내 붓다는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종교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것이다.

석가모니 붓다처럼 생사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자력(自力)이라 부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붓다의 가르침을 믿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어느 누구의 힘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력신앙이다. 스스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이와 달리 기독교에 의하면 인간은 결코 스스로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은 지음을 받은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를 해결하는 주체도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이처럼 신의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타력신앙(他力信仰)이라 한다.

자력이든 타력이든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나고 죽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종교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타력신앙의 전통에서는 종교적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반면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는 불교와 같은 전통에서는 깨달음이나 열반 혹은 해탈이라 부른다.

아무리 위대한 학문이라도 이러한 생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종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리켜 '으뜸가는(宗) 가르침(敎)'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제1기 불교대학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불교대학원에서 각단 불교의식 및 범음범패를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각단 불교의식 과정(초급) | 6개월

범음범패 과정(중급) | 1년

교육안내

• 도량석, 종송, 향수혜례, 삼보통청,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신중39위작법, 관음시식, 초발심자경문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6개월 과정 수료 후 수료증, 1년 과정 졸업 후 법사 호품수증서를 수여해 드립니다.

모집안내 문 의 : 김해 관음정사 종무소 055-342-3679 / 010-4940-8979 / 교육원 010-9326-6071

• 모집대상 스님 및 출가예정자, 재가자, 사찰운영자
• 개강일시 2019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 준 비 물 목탁, 요령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업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김해 불모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평지길 299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고즈넉한 산사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불모산 관음정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하세요.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합장